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김용창*

Neoliberal Urbanization and Urban Enclosure (I): A Theoretical Intervention

Yongchang Kim*

요약 :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 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몰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주요어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도시화, 도시 인클로저, 사적공용수용, 법제지리학

Abstract : Philosophical roots and discussion frames of neoliberalism are very heterogeneous and approaches to neoliberalism including anarchism, post-neoliberalism also take diverse stances. Even if neoliberalism is losing legitimacy and stabilit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spatial perspectiv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neoliberalism constantly evolve with creating immense variations. Especially, urban space has become strategically crucial arenas as spatio-temporal strategies and generative nodes for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Urban enclosure plays a key role in the specific process of neoliberal urbanization as a kind of capitalist formal and real subsumption. Contemporary capitalism continuously has been sustaining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based on urban enclosure through reshaping the primitive accumulation mechanism. These enclosures are embodied by the change of public use concept from public ownership to economic benefits and public-private taking for private capital. Urban enclosure promotes reification deepening the separation and alienation of workers from the means of production and survival, and interdiction from free place appropriation, transformation of urban economy to patrimonial forms. Also it is pervasive in a daily life space and everyday experience in the city, and private tangled social rules dominate public space and the publicity of space.

Key Words : neoliberalism, neoliberal urbanization, urban enclosure, public-private taking, legal geography

이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BK21플러스 사업(4-Zero지향 국토공간창조 사업단,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겸무연구원, kimyc@snu.ac.kr

1. 머리말

최근 Jessop은 “전체 과정이 기호학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든 개념은 정의내리는 것을 거부하며, 역사를 갖지 않는 것만 정의할 수 있다”고 한 니체(Nietzsche, 1994, 53)의 말을 인용하면서 작금의 신자유주의 논쟁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현대 사회 설명의 만병통치약으로서 신자유주의를 불러내는 주장에서부터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로는 신자유주의를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 사회과학적 엄밀성을 갖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단지 비판과 저항 전략을 안내하기 위한 틀일 뿐이라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에 대해 아주 다양한 의미와 접근법들이 있으며, 때로는 혼란스런 용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Jessop, 2013, 65).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대상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론적 규정과 시공간적 구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1970년대 중반의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가 출현하였고, 도시공간은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글로벌 자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끊임없이 재조직되고 있다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Jessop, 2002; Brenner and Theodore, 2002).

1970년대 경제공황을 기점으로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의 변동을 신자유주의라는 포괄적 논의구도 속에서 분석하는 연구와 정책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시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통상 신자유주의 개념은 세계경제에서 자유 시장경제 원리 중심의 제도적 전환과 정책재편성(realignments)을 규정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수많은 논의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명료한 사회과학적 이론화가 애초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¹⁾ 아울러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마르크스주의 분석도 여타 접근의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Brenner and Theodore, 2005; Saad-Filho and Johnston, 2005; Harman, 2008).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대한 연구가 21세기 들어 많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공간 전략의 중심으로 도시 공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원의 경쟁은 도시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식되었고, 도시기업가주의, 성장연합 등 경쟁원리 주도의 도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도시공간 생산 자체가 거대 개발 사업방식을 통한 상품화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공간 변화를 구체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도시 인클로저(enclosure)와 그 법제지리적 기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Hodkinson, 2012).

다행히 최근 들어 자본주의 시초(원시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 시기의 인클로저, 즉 ‘올타리치기’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도시차원의 이론적·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과거 시초 축적 시기의 인클로저 역할과 자원배분체계의 재구성, 인클로저와 자본축적 사이 관계를 다시 주목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발전경로와 공간구성(spatial formations) 방식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대안적 공간실천 전략 또는 플랫폼을 구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자본주의적 팽창과 그에 대한 대안을 인클로저와 공유화(commoning)의 이중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evilla-Buitrago, 2015; Vasudevan, 2015; Hodkinson, 2012; De Angelis 2007)

인클로저는 영국에서 15세기 이후 공유지, 미개간지, 황무지, 개방경지, 교회 토지 등에 올타리를 치고 경계표시를 함으로써 사유지로 전환시킨 것을 의미한다. 크게 두 번에 걸쳐 일어났는데,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로서 곡물가격보다 양모가격이 급증하자 봉건영주들이 경작지를 목장지로 전환시키면서 일어났고, 비합법적 과정을 통해 사유화되었다. 두 번째는 인구증가에 따라 식량수요가 급증하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8세기~19세기에 걸쳐 입법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때문에 의회인클로저(parliamentary enclosure)라고도 한다. 1차를 민간 주도적 인클로저라고 한다면 2차는 국가의 정책개입을 통한 인클로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클로저, 특히 2차 인클로저를 통

해 개방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 정립과 토지의 사유재산 제도 확립, 토지통합과 대토지소유, 자본가적 농업경영,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근대적 임금노동자 창출, 산업도시 형성을 촉진하였다. 이른바 자본주의 시초 축적의 기초를 이루었다(Mingay, 1997; Wordie, 1983; 田代正一, 2007).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인클로저를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최근의 인클로저 논의는 종종 때 이른 난파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적 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지만(Sevilla-Buitrago, 2015),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전하고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이후, 특히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전개되는 합법성을 가장한 사유화와 재산권의 재편성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적편익을 위해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공유재산이나 기존의 공간이용 이해관계를 새롭게 사유화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확립하는 과정, 공간이용의 공공성이나 공공영역을 사적 이해관계로 전환하는 과정 등이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역사적으로 인클로저는 공유자원을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무산자로 만들면서 자본주의 산업도시의 산파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오늘날 인클로저는 주로 현대 자본주의의 도시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차원의 울타리치기(new urban enclosures)이며, 탈취에 근거한 축적과정의 영역화와 도시화 과정을 의미한다(Hodkinson and Esen, 2015; Hodkinson, 2012; Dawson, 2010).

그러나 도시 인클로저 연구 역시 초기단계에 있는 관계로 인클로저의 도시 공간적 차원과 축적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이론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 모두 아직 부족하다. 아울러 도시 인클로저에 대한 연구의 경우도 대상 자체가 재산권 체계의 재구성 및 계급적 역학관계의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인클로저를 상위차원의 담론인 신자유주의 일반론이나 탈취(dispossession) 기반 축적론과 이론적 관계만을 검토하는데 머물고 있다. 즉 현대적 인클로저를 유발하는 도시공간에서 재산권변동의 실질적 메커니즘으로서 공용수용(compulsory purchase)과 신자유주

의적 공익(public use)개념에 기초하는 사적공용수용(public-private taking) 차원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16세기 이후 자본주의 전사를 위한 사회변동과정에서 인클로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든 재산소유(property)으로부터 노동자의 완전한 분리를 전제한다. 일단 자본주의 생산이 발을 내딛자마자 이러한 분리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된 규모로 이 분리를 재생산한다.”[Marx, 1954(1989), 668(899)]라고 말한 것처럼 토지를 둘러싼 재산권체계의 변동은 인클로저의 근본요소이다. 이렇게 볼 때, 인클로저는 사회적·법제적 관계이면서 공간적 관계이다.

전통적으로 법학은 법적 관할구역 내에 법제를 단순히 적용하는 사고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장소 또는 공간적 관점을 소홀히 하였고, 지리학 또한 장소와 공간의 형성에서 법제의 효과와 그 효과의 상이한 전개를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하였다. 현대 도시 인클로저는 재산권 체계와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공간질서를 창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와 공간에 대한 법제지리적 관점을 필요로 한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도시성장 이데올로기 정립, 계획 실행을 위한 공익개념의 전환, 강제수용 법제와 논리의 변경 등과 같은 일련의 구체적인 법제적 메커니즘을 통해 특정 공간을 분리하고, 상품화시킴으로써 공간적·법적·시간적으로 인클로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Layard, 2010).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통치전략과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관점의 연구가 지배적이고, 도시 공간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인클로저 관점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아울러 도시 인클로저 논의 역시 주로 공유자원의 사유화 통제 및 공유성 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클로저의 기본 대상인 재산권 체계 변화에 개입하는 비경제적 관계(사법권력 포함)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시초축적기에서 역할과 달리 사유재산제 확립 이후 단계에서 재산권 체계의 재편성을 통한 도시 공간 및 자원에 대한 접근권 재구성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으로서 새로운 도시화를 규정하

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현대 도시 인클로저에서 토지재산권 체계에 대한 분석이 기본이 되는 이유는 토지재산권 체계와 변화가 도시의 공간자원 배분 및 개발방식을 결정하고, 물리적 공간형성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클로저의 속성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메커니즘의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서 재산권 체계의 변동과 탈취 기반 축적, 그 구체적인 실행메커니즘으로서 도시 인클로저와 사적공용수용, 실제 도시개발 사업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현대 도시 인클로저 연구의 이론적·경험적 빈틈 일부를 메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신자유주의 논쟁과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시공간전략으로 도시화와 공간생산의 구체적 현상으로서 도시 인클로저, 인클로저의 구체적 메커니즘으로서 사적공용수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도시 인클로저의 실증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적공용수용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도시개발 사례를 토대로 도시 인클로저 유형을 구분하고, 인클로저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으로서 도시화

1)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접근과 탈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정부정책 등을 통한 그 확산과 실현수단으로서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sation)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Morange and Fol, 2014; Harman, 2008).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사유재산권, 개인자유,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기업가적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인간의

참된 삶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경제적 실행이론”이라는 하비(Harvey)의 규정이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Harvey, 2006, 145).

이데올로기와 실행과정으로서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다원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 시장과 국가사이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식과 접근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 푸코(Foucault, 2008)의 1978~1979년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서 강의이다. 그는 이 강의에서 신자유주의의 사상적·실천적 계보와 궤적을 찾는데 풍부한 역사적 설명을 제시한다. 아울러 시장정책의 표출과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를 내포하는 독일어의 신자유주의, 철저한 자유시장경제학과 국가의 경제논리 종속을 중시하는 하이예크와 시카고 학파의 미국적 신자유주의의 차이를 주목한다. 푸코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수단(arts)이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적 사유체계의 확립과 전파, 시장 질서를 만드는 규제메커니즘, 새로운 경제인의 형성, 비시장적 관계로의 시장경제원리 확산, 시장과 국가사이 연결고리로서 새로운 정부형태의 구성 등 다양한 신자유주의적 기획들을 포함한다. 최근 신자유주의 논의의 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통치성 접근은 이러한 푸코의 『생정치 탄생』에 대한 저작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다(Dardot and Laval, 2014; Gane, 2014; Morange and Fol, 2014; Hilgers, 2010).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존 인식론 또는 이해방식이 과도하게 푸코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접근이라는 두 방향으로 이분화 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나는 하향식 접근의 틀에서 시장규칙의 경제논리와 헤게모니 기획으로서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경제학자와 마르크스주의자의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탈구조주의적 상향식 접근 틀에서 통치기술로서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는 푸코주의 접근이다. 바깥(Wacquant)은 대안으로서 국가, 시장, 시민권 사이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프링어(Springer)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사회공간적 전환의 관점

에 기초한 담론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정치경제학적 접근과 탈구조주의적 접근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담론을 통해 순환하는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는 다채로운 과정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Springer, 2012; Wacquant, 2012).

이러한 구분을 이론적 배경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고, 인류학적 관점을 강조하는 힐거스(Hilgers)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논의를 각각 이론적 신자유주의와 실천적(practical) 신자유주의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힐거스는 신자유주의의 지배적 담론인 시장, 제도개혁과 정치적 실행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론중심의 연구나 경제학·정치학과 같은 분야가 그림자 상태로 남겨둔 영역, 즉 신자유주의적 실행과 재현들이 글로벌 스케일에서 어떻게 생산 및 전파되는가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ilgers, 2012; Hilgers, 2010).

이처럼 신자유주의 논의에는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혼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신자유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신자유주의 접근방법들을 종합하면 크게 문화이데올로기와 지식적 헤게모니 기획, 경쟁과 시장논리 중심의 관료제적 경제정책 기획, 통치기술로서 정치적 기획이라는 세 가지 접근방법으

로 정리할 수 있다(표 1 참조).

신자유주의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원리가 자유시장 경제와 경쟁 및 자본 헤게모니 복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의 역할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단순한 국가의 철수나 규제 완화화가 아니라 시장과의 관계설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기초한 시장경쟁 구조의 형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통치기술(neoliberal governmentality)과 합리성을 다시 설계하여 제도화하고, 이상적인 인간형으로서 기업가주의적 자아의 체내화와 확산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Cahill, 2015; Dardot and Laval, 2014; Gane, 2014; Morange and Fol, 2014). 신자유주의의 시간적 전개 관점에서 이러한 국가의 성격과 역할변화를 퇴행적 철수(roll-back)와 개입영역의 재구성(roll-out)으로 해석하기도 한다(Brenner and Theodore, 2002).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는 상대적으로 자원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했던 복지국가(포디스트-케인즈주의) 시스템으로부터 자본가 계급의 권력회복을 위한 헤게모니 기획의 일부로 해석한

표 1. 주요 연구자의 신자유주의 접근방법 구분

연구자	접근방법 구분
Hilgers (2010)	① 신자유주의의 고유의 재현과 실천들을 인식하는 문화로서 신자유주의(문화주의적 접근), ② 사회적 공간에서 상이한 입장들 사이 관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 또는 구조로서 신자유주의(시스템적 접근), ③ 신자유주의를 이론 또는 실천이 아닌 지속적인 성찰을 통한 자기규율적 양식으로 이해하는 통치성으로서 신자유주의(통치기술적 접근)
Jessop (2013)	① 질서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신념공동체로 고취된 지식적 전문가주의 기획 또는 인식론적 구성, ② 시장중심주의와 권위적(징벌적) 포퓰리즘 특징을 갖는 정치양식 또는 정치적 기획, ③ 경쟁과 시장의 힘을 확장하려는 의도의 경제정책집합, ④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 전후 성장양식의 위기 이후 조직노동에 대해 공세적 자본가 집단이 취하는 형태, ⑤ 자유무역과 초국적 생산 및 금융자본의 자유이동이라는 특징을 갖는 구체적 시기 국면으로서 신자유주의
Springer (2010)	①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기획으로서 신자유주의(지식 구성체), ②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관료제 구성체), ③ 통치기술로서 신자유주의(정치 구성체)
Wacquant (2012)	① 경제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교하게 만드는 정치적 기획, ② 계급구조의 상층부에서는 자유주의를 실행하고 하층부에서는 징벌적 온정주의를 실행하는 켈타우르스 국가적(Centaur-state) 자원배분, ③ 형벌 규칙의 성장과 변창으로의 국가 성격 변화

다(Saad-Filho and Johnston, 2005; Harvey, 2005a; 2005b). 이렇게 볼 때 하비가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업적으로 꼽고 있는 ‘탈취기반 축적’은 새로운 축적기반 형성과 재편성을 위한 비경제적(extra-economic) 제도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Harvey, 2003; Glassman, 2006).

사회적 측면과 시민권의 측면에서는 탈산업적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즉 비정규직, 파견직, 노숙자 등과 같이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이 만성적인 상태가 되는 불안정 프롤레타리아트의 끊임없는 생성과 주변성의 강화가 이루어진다(Standing, 2011). 이와 동시에 신자유주의는 ‘시장이라는 적나라한 제국’의 출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간존재로서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일반적인 사회정책 흐름을 만들고, 보호적 사회정책은 규율적 사회정책(workfare)과 형벌적 관리 시스템의 확장(prisonfare)으로 바뀐다. 바강(Wacquant, 2014)은 이러한 과정에서 인종기반 균열, 선별적 표적화와 주변성이 도시 중심으로 재생산되고, 국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체제의 관철을 일단 전제하는 보편적 관점의 접근과 달리 특수한 관점에서 선다면 신자유주의의 존재양식 자체에 대한 다양성, 가변성 및 취약성을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탈신자유주의(post-neoliberalism) 관련 논의로 전개되며,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관철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성을 주목하는 것과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경제체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러한 논의들은 역사 제도주의 관점에서 다채로운(variegated) 사회경제체제 개념을 전제하면서 역사적·공간적으로 맥락성이 풍부한 설명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Vidal and Peck, 2012).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1990년대 정점기를 지나면서 2007~2009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아젠다의 적합성에 도전하는 탈신자유주의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안정적 조절능력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이후의 모습, 즉 탈신자유주의의 대안적 시나리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인류학 저널인 *Social Anthropology*를 통해 2012년부터

활발한 논쟁이 일고 있으며, 발전론 저널인 *Development Dialogue*의 탈신자유주의 특집호(2009)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신자유주의가 정당성을 잃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경제적 전환의 전망과 해방에 대한 사고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으로서 탈신자유주의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Morange and Fol, 2014; Jessop, 2013). 매시(Massey) 등이 전개하고 있는 킬번 선언(Kilburn Manifesto) 역시 신자유주의가 모든 것을 정복한 것도 아니며, 금융위기를 계기로 내파상태에 있다는 상황인식을 토대로 신자유주의 질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급진적 대안을 위해서 전통적 사유체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아젠다 재설정을 주장하는 노력에 해당한다(Hall, Massey and Rustin, 2013).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가장 급진적 대안을 추구하는 아나키즘의 관점에서는 현대 선진 자본주의 경제도 상당부분 상호부조, 호혜주의, 협동 및 포용 등과 같은 비자본주의적 경제경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탈신자유주의의 미래는 비상품적 실천들(non-commodified practices)에 기초하는 아나키스트적 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hite and Williams, 2012). 앞으로 살펴볼 인클로저 관련 논의 역시 마르크스의 정통적 해석과 일정한 단절을 도모하는 동시에 탈신자유주의 대안을 위한 아나키스트적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Midnight Notes Collective, 1990).

이처럼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종언이나 탈피를 논의하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이나 금융자본의 힘을 제어하려는 정부감독의 증가를 강조하면서 케인즈주의적 규제양식과 국가개입으로의 새로운 회귀라는 주장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신자유주의 논의가 아직은 탈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체적 특성이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자유주의의 적응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즉 자본주의적 과잉축적과 위기(또는 공황)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만능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위기는 ‘상호구성적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위기

라는 모멘트는 신자유주의 기획의 압박한 파국을 예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Springer, 2015; Morange and Fol, 2014). 비록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실패했지만 신자유주의의 책략들(practices)은 여전히 원기왕성하며, 상상이상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Aalbers, 2013; Smith, 2008; Peck and Tickell, 2002). 그리고 국가주권 차원에서 볼 때도 IMF와 WTO와 같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기구들은 미국 등 소수 국가의 통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히 비민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Tabb, 2003). 하비의 탈취에 근거한 축적체제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도시화 연구 주장들이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며, 지리학의 신자유주의 논의 역시 대부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의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최근 신자유주의 논쟁에서 지식적 기획이나 기호학적·이데올로기적 쟁점을 넘어 공간적 관점을 도입하면서 이른바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신자유주의’(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에 중점을 둬으로써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과 파괴적 자기 혁신역량을 동시에 인식하려는 ‘지리 기반 제도적 차별화’(geoinstitutional differentiation)의 체계적 생산을 강조하는 것이다.²⁾ 이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자본축적 위기에 따른 창조적 파괴를 통한 위기돌파라는 경제 결정론적 접근(fixist perspective)과 혼종성, 변이성을 강조하는 푸코주의적 접근이 갖는 탈구조주의적 가변성이라는 이중 뒤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Morange and Fol, 2014; Brenner *et al.*, 2010).

이러한 공간적 관점의 도입으로 도시공간은 신자유주의 인식론과 존재론 및 실천론에서 중심에 서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도시연구의 원형은 1970년대 중반 경제공황을 계기로 한 자본주의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 체제에서 강화되었던 사회공동체적 거버넌스로부터 자본과 그 이해관계를 복구하고, 자본의 이해관계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재구성하여 결합시킴으로써 물질과 정신 양 측면에서 축적동력을 공고히 하려는 자본의도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다(Wrenn, 2014). 마찬가지로 도시공간에서도 종래의 집합적 서비스 공급과 같은 복지관점이 아닌 경쟁과 성장논리를 중시하는 정책변화를 주목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과 관점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예컨대 도시성장연합(growth coalition), 성장기계(growth machine), 도시통치체제(urban regime), 도시기업가주의(urban entrepreneurialism),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사적자유주의(privatism) 등의 개념들이 도시를 무대로 축적위기를 해결하려는 자본의 공간생산 전략과 자본가 계급의 헤게모니 복원을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도시사회경관 차원에서도 이중도시(dual city), 선진국 도시의 3세계화, 도시의 요새화(fortress city), 성채도시(citadel city), 감옥도시(carceral city), 포스트모던 도시 등과 같이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체제 이후 도시의 양극화를 주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종의 신자유주의 도시연구의 원형(prototype)으로서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신자유주의 틀에서 본격적인 도시연구는 21세기 들어 이루어졌다(김용창·이상현, 1998; 최병두, 2011a; Beatty, 2014; Morange and Fol, 2014; Ceballos, 2003; Mossberger and Stoker, 2001; Logan and Molotch, 1987; Molotch, 1976).³⁾

이처럼 21세기 들어 신자유주의 관점의 도시 연구가 증가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정책들이 계속해서 도시개발 지형을 전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를 재생산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생성적 거점(generative nodes)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Peck *et al.*, 2013). 지구화와 지방화의 결합 전개, 기존 복지서비스공급체계의 개편, 상징공간의 생산과 공간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경쟁과 기업가주의 이데올로기 전파, 포함과 배제의 의도적 전개, 개발 거버넌스 재구

성 등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기본성격과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단위와 규모로 도시가 부상한 것이다(Brenner, 2004; Brenner and Theodore, 2002). 정치기획이나 정책측면에서 볼 때도 시장지향성의 선택적 국가개입과 확장이라는 신자유주의 국가성격을 가지적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 도시영역이 되었다(Morange and Fol, 2014).

이러한 거시전략 차원 이외에도 거대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공간 자체가 잉여가치 창출의 직접 대상이 되었다(Swyngedouw *et al.*, 2002; Weber, 2002). 이처럼 도시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기획과 경쟁전략 도입, 정책실행을 위한 공간 규모와 단위를 유연하게 재구성하거나 다시 짜기(Scaling) 가장 적합한 대상이고, 그 때문에 지난 30여 년 동안 창조적 파괴라는 신자유주의 전개의 핵심무대가 된 것이다(Brenner, 2004; Brenner and Theodore, 2002).

오늘날 영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전통적인 복지 국가 체제가 강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도시를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도시들에서 신자유주의가 유지·강화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도시화는 개별 도시 차원의 국지적 공간규모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지구 공간 차원의 입지이점을 추구하는 지구적 경쟁기반 도시화(glurbanization)라는 특성을 아울러 갖는다(최병두, 2011a; 2011b; Matusitz, 2010; Hooks and Lobao, 2010; Brenner and Theodore, 2002).

그렇다면 이러한 신자유주의 도시화는 자본주의의 공간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체제를 새로이 구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지배적인 담론은 신자유주의 도시화가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제도적 차이를 반영하는 경로의존성, 기존의 사회적 투쟁과 타협이 각인된 공간, 다채롭고 가변적인 전개, 위기내재적인 공간형태(topography)와 같은 불균등발전과 불안정 형태를 띤다고 본다(Peck *et al.*, 2013; Brenner *et al.*, 2010). 이러한 관점은 수렴론 입장의 신자유주의론에 반대하는 신제도주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즉 자본주의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나 제도에 맞도록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도시화 역시 경로의존적인 고유한 발전경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Thelen, 1999; Amenta and Ramsey, 2010).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실체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절양식이라는 논리적 모순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낳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탈신자유주의 아젠다 설정에 반대하는 입장들은 자본주의의 위기 또는 공황은 신자유주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조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네오케인즈주의 국가의 회귀에 기초하여 단지 금융자본의 과도한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역할로 되돌아간 것일 뿐, 이를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나 탈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차원에서 도시 거버넌스의 새로운 합리성이 출현한 것은 아니며,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예음길로서 재조정 과정의 선택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대한 일종의 진화론적 입장은 신자유주의 도시성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비판적 도시이론 기획이 여전히 필요함을 강조한다(Morange and Fol, 2014; Peck *et al.*, 2013).

방법론적 측면에서 최병두는 탈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들 대부분이 '공간적 규모' 접근과 대안적 도시 공간 전략을 무시함으로써 피상적이거나 주제의 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면서 탈신자유주의 논의의 구체성을 위해서는 대안적 도시화의 가능성,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최병두, 2011b).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천론 측면에서 탈신자유주의 논의가 갖는 의의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도시재조직화의 기초를 닦으려는 시도이면서 해방 전망으로서 탈신자유주의 도시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는 과거 중세 봉건시대로부터 해방기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도시재구조화 기획의 저항지점이며 신자유주의 기획의 한계와 모순 및 변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점을 제공한다(이성백, 2014; Morange and Fol, 2014; Peck *et al.*, 2009).

3. 신자유주의 자본축적과 도시 인클로저

1) 자본축적과 도시 인클로저

소자(Soja)는 공적·사적 공간에서 인클로저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거대 쇼핑공간의 생산에서 레이저와이어 쓰레기통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에서 그 형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공간적 통제를 위한 미시기술들(microtechnologies)이 일상 생활에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푸코주의적 미시통치기술의 발전을 잘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oja, 2010; MacKinnon, 2000).

신자유주의의 적응과 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상투적인 자유시장이라는 주문(mantra)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에 영향을 주고, 서서히 진행되는 암처럼 다양한 책략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Aalbers, 2013; Brenner and Theodore, 2002). 도시 공간 역시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환경이라는 메타환경과 보편적 신자유주의 제도의 지리적 차별화가 함께 작동하는 공간이자 구체적 실행전략의 핵심대상이다(Brenner and Theodore, 2010). 이러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 즉 자본의 형식적·실질적 공간포섭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신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공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편성과 이해관계 및 공간통치양식을 변경해야 하며, 미시적으로는 재산권 체계의 변경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인클로저 현상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Hodkinson, 2012).

도시 인클로저는 산업자본주의의 토대를 제공한 공유지의 역사적 인클로저 모델에 기초하여 현대의 도시 공간재구조화에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마르크스와 전통적 해석에서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적 포섭(subsumption)의 구체적 형태(즉, 인클로저의 추상적 개념으로서 포섭)이자 작동기제로서 비자본주의의 영역들을 자본주의적 가치창출 영역으로 흡수·통합하

고, 지속적 자본축적을 위한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클로저의 현대적 쟁점은 도시 인클로저가 자본주의의 어떠한 영역을 새로이 포섭하여 축적양식을 어떻게 재구조화 또는 지속시키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즉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다양성이나 통치기술적 지속성과 심화의 구체적 메커니즘이자 현상으로서 도시 인클로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클로저(와 공유화)는 배제, 폭력, 타자 만들기의 현대적 과정을 공간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개념이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도시화나 대안적 실천전략을 구상·실행하기 위한 정책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사유화, 상품화와 시장화, 비시장적 생산조건의 해체, 탈취기반 축적, 공간적 배제 등 다양한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등 개념적 모호성이 크다는 비판도 받는다(Sevilla-Buitrago, 2015; Jeffrey *et al.*, 2012).

고전적 인클로저와 달리 현대 자본주의 인클로저의 현상 형태는 복지국가체제에서 노동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규제 또는 법제적 틀을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 한 국가의 퇴행적 원상복귀(role-back)와 개입방식의 새로운 전개(role-out)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국가연금과 국민보건, 교육에 대한 권리,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공간적·비공간적 공유재산의 개편과정을 통해 드러난다(Hodkinson and Essen, 2015; Peck and Tickell, 2002). 하비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분열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때마다 자본이 끊임없이 새로운 이윤추구 대상을 찾으면서 현대의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대상들을 점점 더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략시키고 규정한다. 그 대상은 의료, 교육, 주택, 가사영역, 좋은 자연경관, 교통, 통신, 에너지, 물, 기타 공공하부구조 분야 등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교환가치 중심의 상품화, 사유화, 화폐화, 자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용창, 2015; Harvey, 2014).

자본주의 발전에서 인클로저가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탄생과 발전,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형성과 지속에서 비경제적 관계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즉 임노동관계의 형성과 지속에 기초한 자본주의 가

치 및 잉여가치법칙 전개에 정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Marx, 1954). 주지하다시피 생산수단으로부터 사람의 분리, 즉 노동력 이외에는 달리 생존수단이 없는 인구를 만드는 야수적 과정으로서 시초축적은 자본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이자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다. 가장 냉혹한 사회적·개인적 변혁으로 표현하는 이 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수단은 무엇보다도 토지인클로저였다.⁴⁾ 토지인클로저는 다양한 시초축적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였지만 사유재산권의 법적 정착과 공간편성에서 핵심이었다. 특히 2차 인클로저 전개과정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탈취 형식을 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유지에 대해 전통적인 권리를 갖고 있던 농민들이 접근권을 상실함으로써 임노동 관계의 발전과 산업도시 형성을 가져온 것이다(Hodkinson, 2012; Harvey 2003; De Angelis, 2001; Perelman, 2000).

이러한 시초축적과 인클로저 해석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전통적인 해석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제조건을 탄생시킨 한번뿐인 빅뱅이라는 역사적 과정으로 해석하며, 레닌이 대표적이다. 다른 해석은 로자 룩셈부르크 관점의 해석으로서 과거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성숙자본주의에서도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즉 마르크스의 시초축적 개념은 자본주의에서 일종의 선형성을 갖는 것이며, 시공간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부를 축적하는 지속적 과정으로 본다. 이처럼 시초축적과 인클로저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단절하고 새로운 해석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아나키스트 집단인 「한밤의 쪽지연대(Midnight Notes Collective)」이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인클로저를 촉발하고 있으며, 단지 새로운 자본축적 출구를 찾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축적과정 자체의 광범위한 재조직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인클로저는 고전적인 토지수탈에서부터 인간정서, 비물질적 속성의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고 주장한다(Midnight Notes Collective, 1990). 현재 이러한 관점들은 인클로저의 재출현을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려는 관점과 자본주의에 본래적인 항

구적 특징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으로 다시 나뉘고 있다(Vasudevan *et al.*, 2008; De Angelis, 2007; Glassman, 2006; Harvey, 2003; De Angelis, 2000; Midnight Notes Collective, 1990).⁵⁾

일단 전통적 해석과 단절할 때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인클로저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보며, 안젤리스(De Angelis, 2000)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시초축적에서 인클로저와 탈취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자본주의 지속성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도시화 과정으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은 하비의 탈취기반 축적논리이다. 신자유주의 탈취과정에서 공간을 동원하는 방법인 동시에 탈취기반 축적을 위한 구체적인 공간 편성의 변경수단으로서 도시 인클로저가 신자유주의적 축적의 최첨단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하비가 이러한 축적과 인클로저의 핵심요소로 꼽은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유화와 상품화, 금융화, 국가의 재분배, 위기의 관리 조작을 들 수 있다(김용창, 2009; Hodkinson and Essen, 2015; Sevilla-Buitrago, 2015; Hodkinson, 2012; Harvey, 2003).

법학 관점에서 탈취는 부동산 또는 토지의 정당한 점유에 대한 축출과 박탈로 좁게 정의한다. 그러나 시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체계의 변동과 토지탈취는 식민지, 저개발 지역은 물론, 발전된 자본주의의 도시에서도 이루어지며, 그 구체적 대상과 작동은 복잡한 역사·지리적 특성을 갖는다(O'Mahony and Sweeney, 2011; Fay and James, 2008). 신자유주의의 위대한 점은 탈취와 인클로저를 합법적이며, 자연스런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결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클로저의 구체적 대상 영역은 지역의 비경제적 기구와 제도들이 시장의 작동과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작동의 공간단위도 식민지 토지강탈(usurpation)과 글로벌 공유자원 잠식, 자본주의 변경지역에서 나타나는 탈취에서부터 도시계획과 건축과정의 인클로저, 신체적 공간소의 활동까지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개과정 상의 특징을 인클로저의 다양한 역사적 체제(historical regimes of enclosure)로

도 일컫는다(Sevilla-Buitrago, 2015; Vasudevan *et al.*, 2008).

오늘날에도 인클로저는 자본주의 팽창 과정으로서 공간 및 비공간 영역 모두에서 늘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민간주도의 도시 공간 배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발금융의 증권화 및 초국적화, 민간부동산주도 도시재생 전략처럼 자본축적을 위한 장소, 공간기반 가치증식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정부정책과 개입방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장효율성 촉진,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장소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적 의사결정을 우회하는 지배엘리트 중심의 도시 거버넌스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Dawson, 2010; Keating, 1993; Swyngedouw *et al.*, 2002).

이처럼 도시 인클로저는 과거 공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이 접근 가능하던 공간과 서비스를 사유화하고, 특정 공간의 기존 사용가치와 공공성을 제거하며, 도시계층급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축출·배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생산하려는 다양한 스케일과 방식의 도시 공간 내 울타리치기로 규정할 수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위협당하고 있거나 완전한 자본주의적 관계가 구현되지 않는 공간을 자본축적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신자유주의 도시성(neoliberal urbanism)의 창출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재산과 자원에 대한 권리관계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사유화(privatisation), 접근성과 자원배분변동을 의미하는 탈취(dispossession) 및 영토탈환식의 장악과 개발(revanchist), 신자유주의적 합리성과 자본주의적으로 길들여진 주체를 형성하는 자본주의적 주체화과정(capitalist subjectification)이라는 구체적 활동을 통해서 실행된다(Mele, 2013; Hodkinson, 2012; Dawson, 2010; Hackworth, 2007).

이상과 같은 신자유주의 도시 인클로저에 대한 대안전략이나 실천운동 차원의 연구들은 도시공유자원(urban commons)과 협동조합주의, 도시에 대한 권리와 공유성의 회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들은 도시공간을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도시자원의 공유재산으로 전환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인클로저와 사유화 또는 독점화는 전체 지역사회의 이해에 반하는 일종의 폭력(violence)행위로 간주한다(이계수, 2014; 강현수, 2010; 강현수, 2011; Webb, 2014; de Peuter and Dyer-Witheford, 2010; Blomley, 2008).

도시 인클로저 현상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 연구들은 주로 토지자원의 공동체적·사회적 통제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의 지배적인 담론인 토지와 자연의 사유화와 인클로저라는 신자유주의적 규범에 대처할 수 있는 대항담론 구성을 통해 재산권과 자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재의미작용(resignification)을 개척해야한다는 것이다. 반인클로저 투쟁은 방어적이고 대응적인 측면을 주로 갖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방어라는 한계가 있지만 대안적 사회관계로서 공유화(commoning)를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접근과 권리를 갖는 공유자원 집합체로서 도시, 상호의존 및 협동에 기초하는 비배제적 생활양식, 장소와 지역에 기초한 집합적 권리, 도시공간을 점유하고 전유할 권리 확립 등을 구체적인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Mackenzie, 2013; Hodkinson, 2012; Mackenzie, 2010; Mansfield, 2008).

2) 도시 인클로저와 탈취 그리고 사적공용수용

현대 도시에서 탈취에 의한 축적과 인클로저의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공간 스케일과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중상층으로의 거주민 교체(gentrification)와 공공임대주택의 사유화, 민간투자금융(PFI)을 통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 공급, 주거단지의 브랜드재구성(rebranding)을 통한 기존 장소 정체성의 제거(Amaral, 2015; Hodkinson and Essen, 2015; Hodkinson, 2012), 금융위기를 통한 주택압류와 같은 광범위한 탈취와 축출(Dyal-Chand, 2011; O'Mahony and Sweeney, 2011), 과거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한 민간개발자본의 재인식, 인종적·성적 분화 및 배제주의에 토대를 두는 탈취 기반 축적(Mele, 2013; Punam, 2005), 다양하고 이

질적 도심부 공간을 동질적인 사적소유 상업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도시재개발(Layard, 2010; Blomley, 2008), 저개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점차 선진국으로도 확산되는 수탈적 토지투자(land grab)(권오범, 2014; Ince, 2014; Zoomers, 2010) 등이 그간의 연구 사례들이다. 그리고 지리학적 관점에서 넓게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에 따라 사유재산권 이데올로기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과 사회 사이 관계 설정 변화, 자연의 사유재산화, 자연의 탈자연화에 대한 논의도 인클로저와 탈취기반 축적으로 연결된다(Edwards, 2015; Mansfield, 2008; Castree, 2005; Blomley, 2004).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과 스케일에서 기존 자원의 이해관계 및 공유자원(common wealth)을 재구성하는 인클로저는 시초축적기와 현대 도시 인클로저 모두 합법성을 가장한 법제 기반의 토지재산 재편성과 행위통제 규범 확립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취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경로를 따른다. 마르크스는 공유지를 몰수하여 사유화하는 토지인클로저법(Land Enclosure Acts)과 같은 입법과정, 거지와 방랑자를 통제하고 임노동자의 행동문화를 강화하는 규범 확립과정으로 시초축적을 분석하였다. 현대 도시 인클로저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 관련법들의 제·개정이나 해석변경,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이나 담론형성, 경제적 공익개념의 확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Marx, 1954; Amaral, 2015).

시초축적기인 18세기 영국에서 인클로저에 반대하고 공유경제(common-right economy)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있었다. 자본-임노동관계의 지속적 재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력 이외에 생활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서 인클로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국익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대로 공유경제 옹호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저술가들이 극단적인 혐오와 분노적 불신을 전파하였으며, 국가경제성장과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였다. 그리고 공유지 점유자들(commoners)에 대해서는 후진성의 본보기, 추악한 집단, 게으르고 야만적이며 위험한 존재, 미개인, 사악하고 비열한 사람들이라는 인

식을 심었다(Fairlie, 2009; Neeson, 1993, 25-33). 이러한 인클로저 이데올로기는 사적공용수용에 기반한 현대의 도시 재생정책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김용창, 2012a; 2012b).

본래 인클로저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였다. 토지에서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sanctity and inviolability)과 자본주의 사회의 궁극적인 문화 가치라는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구현했던 것이다. 탈취와 축출(displacement)은 단지 인클로저의 결과가 아니라 인클로저의 본질이었고, 노동력의 상품화와 사적이윤을 위해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고도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공간의 상품화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인클로저는 생산양식에서 '중대한 변화'였고, 반면에 기계기반의 채택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내에서 이루어진 혁신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Hodkinson, 2012; Perelman, 2000).

현대 도시 인클로저의 결과는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공간의 생산, 도시재생, 볼거리를 강조하는 상징 공간의 생산, 고급폐쇄주거지의 생산 등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지만 구체적 메커니즘은 공용수용법, 토지구획정리법, 주택법 등 법에 근거한 합법적 탈취와 그에 따른 부동산 행위 주체들과 그 이해관계자들에게로 재산의 재집중에 기초한 자본축적 과정이자 공간생산과정이다(Amaral, 2015).

새로운 형태의 도시 인클로저 역시 원리상 시초축적 과정과 유사한 탈취 효과를 지닌다.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효과의 하나가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몰상화(reification) 효과이다. 인클로저의 결과, 일반시민들은 생산수단과 생존조건으로부터 소외를 겪으면서 의지를 갖는 자유주체가 시장의 객체로 바뀌는 것이고, 자유로운 장소향유(place appropriation)를 제지당한다. 이는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기존에 지역주민이 누리고 있던 일상생활 공간의 자원들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로부터 기존 또는 전통적 지역사회와 도시장소가 해체된다. 푸코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주체화 과정이 도시 인클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물상화의 심화는 장소의 상품화를 숨기고, 인위적 질서개편을 티가 나지 않도록 세련된 의미로 확산시키면서 도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이를 일컬어 은연중에 행위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스프레차투라(sprezzatura)에 의한 탈취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사적이익으로 뒤얽힌(private tangled)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maral, 2015).

공간경제 측면에서는 새로이 창출된 공간을 바탕으로 재산불평등 및 지대경제와 결합된 세습가산제(家産制) 형태(patrimonial forms)로 도시의 경제성격이 변하게 된다(Amaral, 2015). 이러한 인클로저의 경제적 작동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토지지대론에 근거한 분석이 필요하다. 도시공간의 인클로저는 거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와 도시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지만 미시적으로는 토지지대 관계의 재편과 소득재분배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도시 공간 재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에 비해 2000년대 이후 도시연구에서 지대와 토지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공간의 변화를 주로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드문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중심은 사적공용수용과 같은 토지재산권의 재편성을 통한 공간생산 자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대와 토지소유 사이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최근 일부가 계급독점지대 또는 독점지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계급독점지대의 재인식은 토지소유자, 개발업자, 주택소유자, 금융업자 등에 대해 토지를 둘러싼 일종의 동일이해에 기초한 집단적 계급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약탈적 대출제도, 정책변경, 부유한 소비자용 희소 공간 상품 생산을 결합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경제적 메커니즘으로서 계급독점지대를 논의한다(Anderson, 2014).

하비 역시 경제의 세계화와 국지적 변동, 문화형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독점지대 범주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도시공간의 변동은 진귀함, 진품, 특수

성 및 특이성을 요구하는 독점지대 포획능력에 기초하는 집합적 상징자본과 상징공간의 창출(구별 짓기)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논리와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도시기업가주의 논리가 이러한 변화과정을 지배한다고 본다. 하비에게 현대 도시는 독점지대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여러 조건이 가장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다(Harvey, 2002).

이처럼 현대의 탈취기반 축적과 인클로저 역시 주로 토지를 비롯한 공유재산 또는 공공재산의 사유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클로저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도시 인클로저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토지재산권 체계의 변동이다(Harvey, 2003; Perelman, 2000). 그러나 현대 도시 인클로저 연구들은 재산권 체계 변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인클로저의 본래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익개념의 해석변경과 사적공용수용에 근거하는 도시개발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시 인클로저 과정에서 두드러진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하나는 사익(또는 사적자본의 이익)을 공익으로 둔갑시키는 담론의 형성과 전파이다. 최근의 사적공용수용 연구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역에서 사적자본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적공용수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적소유 공익개념을 버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과 같은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해석변경과 그 담론의 확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동시에 도시재생 지역의 강제수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논리나 행정부의 논리 역시 시초축적시기의 인클로저 옹호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옹호 이데올로기의 전파자와 인클로저 대상이 현대 자본주의에 맞게 재구성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도시 개발사업에서 공익개념에 대한 해석 변경과 확장을 통해서 사적자본의 이익이 공익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사유재산권의 차별, 사익을 위한 공용수용남용, 공적 사인수용(public-private taking), 사칭수용(pretextual taking), '뒤집어진 로빈훅'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김용창, 2012a; 2012b).

4. 결론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크게 마르크스주의 접근과 푸코주의 접근으로 나눌 수 있지만 매우 다양한 접근들이 혼재되어 있고, 때로는 혼란스런 용어로 비취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대안을 추구하는 아나키즘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탈신자유주의를 논의하는 구도도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배적인 관점은 신자유주의가 안정적인 조절양식을 구축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신자유주의 채택들은 여전히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적응성을 갖고 진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제도적 차별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를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간적 관점의 신자유주의 연구가 더욱 중요해졌다. 도시 공간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인식론과 존재론 및 실천론에서 중심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가장 큰 특징은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며, 도시 인클로저는 그 구체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도시는 탈취기반 축적과정에서 가장 전형적인 인클로저 작동 스케일이 되었고, 집단적으로 전유하거나 또는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던 공간을 해체하여 새로운 도시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공공성 또는 공익개념을 새롭게 만들고, 규제방법을 전환하고 있다(Sevilla-Buitrago, 2014). 이는 통상적인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인식과는 달리 단순하게 공공성 또는 공익개념을 해체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재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에서 시장과 공익의 모순적 동거를 의미한다. 도시개발에서 공익개념의 변화를 통한 사적공용수용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개발 수단이다.

이처럼 사적 공용수용을 수단으로 하는 도시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적 공간생산 양식의 장기지속성(longue durée)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된다. 이러한 장기지속을 바탕으로 인클로저는 자본주의 전사를 이루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공간적 구

성체의 출현과 강화를 낳으면서 지속적인 자본축적의 돌파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오늘날 공간의 비시장적 이질성 확대, 다양한 사용가치 중심의 도시 공간 이용, 사회공동체적 통제강화와 공유화의 경향이 강해질 때마다 자본이해 관계를 복원하려는 목적에서 시장거래 적합성을 높이는 공간표준화(규격화)와 동질화, 공간의 사유화와 상품화 및 화폐화를 확산시키고, 공간기반 지대소득 증식을 회복·강화하며, 내포적·외연적 공간팽창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제로서 도시 인클로저와 사적공용수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후속 논문에서는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실제 개발 사례 자료들을 구축한 다음, 현대의 도시 인클로저 유형을 구분하고, 인클로저에 따라 창출된 공간상품 유형, 재산권 체계와 그 이해관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

- 1) Brenner and Theodore(2005, 102-103)는 신자유주의를 완성된 상태가 아닌 시장주도의 과정, 순수한 형태가 아닌 역사지리적으로 구체적인 전략들의 집합양식, 국가권력의 후퇴가 아닌 적극적인 동원, 경로의존적인 결과, 비시장 또는 사회적 조절양식을 고수하려는 다양한 사회적 힘들과의 공세적인 경합과정, 조절실패를 낳은 모순적인 기획, 역기능적인 사회적 결과를 내재하는 진화양식 등으로 특징 짓고 있다.
- 2) Brenner *et al.*(2010)은 이러한 접근을 일컬어 기존의 유력한 3가지 신자유주의 접근인 다양성의 정치경제학, 역사유물론적 국제정치경제학, 통치기술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은 신자유주의 실체에 대한 존재론과 인식론 모두의 차원에서 지리적 관점을 핵심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2002년 급진지리학 저널 *Antipode*가 북미와 서부유럽 도시를 중심으로 다학문적 신자유주의 도시연구 특집호를 발간한 것이 대표적이다.
- 4) 영국에서 인클로저의 전개와 의미에 대한 간략한 정리로는 Fairlie(2009), Wordie(1983), Bradley(1918)을 참조할 수 있다.

5)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 만성적인 과잉축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즉 역사적 국면으로서 인클로저와 탈취를 해석하는 대표적인 입장은 Harvey(2003)를 들 수 있고, 대조적으로 주기적 과잉축적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자율주의 맑시스트 관점이며, De Angelis(2007)를 들 수 있다(Hodkinson, 2012; Dawson, 2010).

참고문헌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강현수, 2011,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의미와 과제,” *공간과 사회*, 35, 5-41.

권오범, 2014, “전 세계적 토지수탈과 한국 해안농업개발의 성격,” *농촌사회학회지*, 24(2), 243-287.

김덕민 역, 2009,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린비(Saad-Filho, A. and Johnston, D., 2005,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Pluto Press, London).

김수행 역, 1989, 자본론 I(하), 비봉출판사(Marx, K., 1954, *Capital: Vol. 1*, Progress Publishers).

김용창, 2009, “물리적 도시재개발에서 도시권으로,” *창작과 비평*, 37(2), 339-353.

김용창, 2012a, “미국 도시재생사업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차별: 법제지리학의 관점,” *대한지리학회지*, 47(2), 245-267.

김용창, 2012b,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 사회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74, 127-148.

김용창, 2015, “피케티보다 근본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데이비드 하비 <자본의 17가지 모순>,” *프레스리안 북스*, 복간 12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358>.

김용창·이상현, 1998, 산업구조조정과 부동산서비스업 환경의 변화, *감정평가연구원*.

김태호 옮김, 2014,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박종철출판사(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이계수, 2014,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민주*

법학, 56, 137-178.

이성백, 2014, “21세기 도시연구의 새로운 방향; 탈신자유주의적 도시의 탐색,” *도시인문학연구*, 6(2), 7-26.

임동근·박훈태·박준 옮김,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지리적 불균등발전론, 문화과학사(Harvey, D., 2005b, *Spaces of Neoliber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Franz Steiner Verlag).

최병두 역, 2005, 신제국주의, 한울(Harvey, D.,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Harvey, D., 2005a,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최병두, 2009,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신자유주의와 도시에 관한 데이비드 하비의 견해 재검토,” *마르크스주의 연구*, 6(2), 26-68.

최병두, 2011a,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3), 263-285.

최병두, 2011b,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공간과 사회*, 21(3), 5-38.

황성원 옮김, 2014, 자본의 17가지 모순: 이 시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 동녘(Harvey, D., 2014, *Seventeen Contradictions and the End of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황성원 옮김, 2014, 자본의 17가지 모순: 이 시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 동녘(Harvey, D., 2014, *Seventeen Contradictions and the End of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田代正一, 2007, *イギリスにおける土地所有の近代化と地主制の形成*, 鹿兒島大學農學部學術報告, 57, 37-47.

Aalbers, M. B., 2013, Neoliberalism is dead ... long live neoliber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1083-1090.

Aguirre, A. and Vu, F., 2006, Eminent domain and city redevelopment in California: An overview and case study, *Social Justice*, 33(3), 101-113.

Amaral, C., 2015, Urban enclosure: Contemporary strategies of dispossession and reification in London's

- spatial production, <http://www.enhr.net/pastwinners.php>.
- Amenta, E. and Ramsey, K. M., 2010, Institutional theory, in Leicht, K.T. and Jenkins, J. C.(eds.), *Handbook of Politics: State and Society in Global Perspective*, Springer-Verlag, New York, 15-39.
- Anderson, M. B., 2014, Class monopoly rent and the contemporary neoliberal city, *Geography Compass*, 8(1), 13-24.
- Beatty, R., 2014, Neoliberal urbanism: Socio-spatial fragmentation & exclusion, *New Visions for Public Affairs*, 6, 41-49.
- Blomley, N., 2004, *Unsettling the city: Urban Land and the Politics of Property*, Routledge, London.
- Blomley, N., 2008, Enclosure, common right and the property of the poor, *Social and Legal Studies*, 17(3), 311-331.
- Bradley, H., 1918(2001), *The Enclosures in England an Economic Reconstruction*, Batoche Books, Ontario.
- Brenner, N. and Theodore, N., 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Antipode*, 34(3), 349-379.
- Brenner, N. and Theodore, N., 2005, Neoliberalism and the urban condition, *City*, 9(1), 101-107.
- Brenner, N., 2004,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Brenner, N., Peck, J. and Theodore, N., 2010, Variegated neoliberalization: geographies, modalities, pathways, *Global Networks*, 10(2), 182-222.
- Cahill, D., 2015, Review essay: Representations of neoliberalism, *Forum for Social Economics*, 44(2), 201-210.
- Castree, N., 2005, *Natur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Ceballos, S. G., 2003, The role of the Guggenheim Museum in the development of urban entrepreneurial practices in Bilbao, *International Journal of Iberian Studies*, 16(3), 177-186.
- Dardot, P. and Laval, C., 2014, *The New Way of the World: On Neoliberal Society*, Verso, London.
- Dawson, A., 2010, Introduction: new enclosures, *New Formations*, 69, 8-22.
- De Angelis, M., 2000, Marx's theory of primitive accumulation: A suggested reinterpretation, Working Paper No.29,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East London, 1-31.
- De Angelis, M., 2001, Marx and primitive accumulation: The continuous character of capital's enclosures, *The Commoner*, <http://www.commoner.org.uk/02deangelis.pdf/>.
- De Angelis, M., 2007,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Pluto Press, London.
- De Peuter, G. and Dyer-Witheford, N., 2010, Commons and cooperatives, *Affinities: A Journal of Radical Theory, Culture, and Action*, 4(1), 30-56.
- Edwards, G. A. S., 2015, Justice, neoliberal natures, and Australia's water reform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DOI: 10.1111/tran.12088.
- Fairlie, S., 2009, A short history of enclosure in Britain, *The Land*, 7, <http://www.thelandmagazine.org.uk/issue/land-issue-7-summer-2009>.
- Fay, D. and James, D.(eds.), 2008, *The Rights and Wrongs of Land Restitution: 'Restoring What Was Ours'*, Routledge, New York.
- Foucault, M., 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8-1979*, PalgraveMacmillan, New York.
- Gane, N., 2014,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Thinking through and beyond Michel Foucault's lectures on biopolitics, *Theory, Culture & Society*, 31(4), 3-27.
- Glassman, J., 2006, Primitive accumulation,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accumulation by "extra-economic" mea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5), 608-625.
- Hackworth, J., 2007, *The Neoliberal City: Governance,*

- Ideology, and Development in American Urbanism*,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Hall, D., Massey, D. and Rustin, M., 2013, After neoliberalism: analysing the present, *Soundings: A Journal of Politics and Culture*, 53, 8-22.
- Harman, C., 2008, Theorising neoliberalism, *International Socialism*, 117, <https://www.marxists.org/archive/harman/2008/xx/neolib.htm>.
- Harvey, D., 2002, The art of rent: globalization, monopoly, and cultural production, *Socialist Register*, 38, 93-110.
- Harvey, D., 2006, Neo-liberalism as creative destruction,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8(2), 145-158.
- Hilgers, M. 2010. The three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 neoliberalism,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61(202), 351-364.
- Hilgers, M. 2012. The historicity of the neoliberal state, *Social Anthropology*, 20(1), 80-94.
- Hodkinson, S. 2012, The new urban enclosures, *City*, 16(5), 500-518.
- Hodkinson, S. and Essen, C., 2015, Grounding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in everyday life: The unjust geographies of urban regeneration under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in the Built Environment*, 7(1), 72-91.
- Hooks, G. and Lobao, L., 2010, Space and politics, in Leicht, K.T. and Jenkins, J. C.(eds.), *Handbook of Politics: State and Society in Global Perspective*, Springer-Verlag, New York, 367-384.
- Ince, O. U., 2014, Primitive accumulation, new enclosures, and global land grabs: A theoretical intervention, *Rural Sociology*, 79(1), 104-131.
- Jeffrey, A., McFarlane, C. and Vasudevan, A., 2012, Re-thinking enclosure: Space, subjectivity and the commons, *Antipode*, 44(4), 1247-1267.
- Jessop, B., 2002,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urban governance: A state-theoretical perspective, *Antipode*, 34(3), 452-472.
- Jessop, B., 2013, Putting neoliberalism in its time and place: A response to the debate, *Social Anthropology*, 21(1), 65-74.
- Keating, M., 1993, The politics of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change and loc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Urban Affairs Review*, 28(3), 373-396.
- Layard, A., 2010, Shopping in the public realm: The law of place, *Journal of Law and Society*, 37(3), 412-441.
- Logan, J. and Molotch, H.,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 Mackenzie, A. F. D., 2010, A common claim: community land ownership in the Outer Hebrides, Scot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4(1), 319-344.
- Mackenzie, A. F. D., 2013, *Places of Possibility: Property, Nature and Community Land Ownership*, Wiley-Blackwell, Oxford.
- MacKinnon, D., 2000, Managerialism, governmentality and the state: a neo-Foucauldian approach to local economic governance, *Political Geography*, 19(3), 293-314.
- Mansfield, B.(ed.), 2008, *Privatization: Property and the Remaking of Nature-Society Relations*, Blackwell Publishing, New York.
- Matusitz, J., 2010, Collapsing the global and the local through interscalar strategies: A glurbanization perspective, *Planning Theory*, 9(1), 6-27.
- Mele, C., 2013, Neoliberalism, race and the redefining of urban re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2), 598-617.
- Midnight Notes Collective, 1990, Introduction to the new enclosures, *Midnight Notes*, 10, 1-9, <http://www.midnightnotes.org/mnpublic.html>.
- Mingay, G. E., 1997, *Parliamentary Enclosure in England: An Introduction to its Causes, Incidence and Impact, 1750-1850*, Routledge, London.
- Molotch, H., 1976, The city as a growth machine: Toward

- a political econom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2), 309-332.
- Morange, M. and Fol, S., 2014, City, neoliberalisation and justice, *Justice Spatiale/Spatial Justice*, 6, 1-29.
- Mossberger, K. and Stoker, G., 2001, The evolution of urban regime theory: The challenge of conceptualization, *Urban Affairs Review*, 36(6), 810-835.
- Neeson, J. M., 1993, *Commoners: Common Right, Enclosure and Social Change in England, 1700-18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Nietzsche, F. W., 1994, *On the Genealogy of Morals: a Polemic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O'Mahony, L. F. and Sweeney, J. A., 2011, Re-thinking Responses to Displacement and Dispossession, in O'Mahony, L. F. and Sweeney, J. A.(eds.), *Home in Law: Displacement and Dispossession*, Ashgate, Surrey, 211-226.
- Peck, J. and Tickell, A., 2002, Neoliberalizing space, *Antipode*, 34(3), 380-404.
- Peck, J., Theodore, N. and Brenner, N., 2009, Neoliberal urbanism: Models, moments, mutations,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9(1), 49-66.
- Peck, J., Theodore, N. and Brenner, N., 2013, Neoliberal urbanism redux?,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1091-1099.
- Perelman, M., 2000, *The Invention of Capitalism: Classical Political Economy and the Secret History of Primitive Accumulation*,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Punam, K., 2005, *Privatization, segregation and dispossession in western urban space: An antiracist, Marxist-feminist reading of David Harvey*, Outstanding Graduate Paper Series, Faculty of Environmental Studies, York University, Toronto.
- Sevilla-Buitrago, A., 2014, Central Park against the streets: The enclosure of public space cultures in mid 19th century New York,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15(2), 151-171.
- Sevilla-Buitrago, A., 2015, Capitalist formations of enclosure: Space and the extinction of the commons, *Antipode*, doi: 10.1111/anti.12143, 1-22.
- Smith, N., 2008, Neoliberalism if dead, dominant, defeatable-then what?, *Human Geography*, 1(2), 1-3.
- Soja, E.,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Springer, S., 2012, Neoliberalism as discourse: between Foucauldian political economy and Marxian post-structuralism, *Critical Discourse Studies*, 9(2), 133-147.
- Springer, S., 2015, Postneoliberalis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7(1), 5-17.
- Swyngedouw, E., Moulaert, F. and Rodriguez, A., 2002, Neoliberal urbanisation in Europe: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new urban policy, *Antipode*, 34(3), 380-404.
- Tabb, W. K., 2003, After neoliberalism: Empire, social democracy, or socialism?, *Monthly Review*, 55(2), 25-33.
- Thelen, K., 1999,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 369-404.
- Vasudevan, A., 2015, The autonomous city: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of occup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9(3), 316-337.
- Vasudevan, A., McFarlane, C. and Jeffrey, A., 2008, Spaces of enclosure, *Geoforum*, 39(5), 1641-1646.
- Vidal, M. and Peck, J., 2012,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and the socially constructed economy, in T. J. Barnes, J. Peck and E. Sheppard(eds.),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Blackwell Publishing Ltd., Oxford, 594-611.
- Wacquant, L. 2012. Three steps to a historical anthropology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Social Anthropology*, 20(1), 66-79.
- Wacquant, L., 2014, Marginality, ethnicity and penalty in the neoliberal city: An analytic cartography, *Ethnic and Racial Studies*, 37(10), 1687-1711.
- Webb, D., 2014, Urban common property: Notes toward

- a political theory of the city, *Radical Philosophy Review*, 17(2), 371-394.
- Weber, R., 2002, Extracting value from the city: Neoliberalism and urban redevelopment, *Antipode*, 34(3), 519-40.
- White, R. J. and Williams, C. C., 2012, The pervasive nature of heterodox economic spaces at a time of neoliberal crisis: Towards a “postneoliberal” anarchist future, *Antipode*, 44(5), 1625-1644.
- Wordie, J. R., 1983, The chronology of English enclosure, 1500-1914, *Economic History Review*, 36(4), 483-505.
- Wrenn, M., 2014, Identity, identity politics, and neoliberalism, *Panoeconomicus*, 61(4), 503-515.
- Zoomers, A., 2010, Globalisation and the foreignisation of space: Seven processes driving the current global land grab,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7(2), 429-447.
- 교신: 김용창,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kimyc@snu.ac.kr)
- Correspondence: Yongchang Kim,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kimyc@snu.ac.kr)

최초투고일 2015. 8. 8

수정일 2015. 8. 23

최종접수일 2015. 8. 27